

# 조유나 양 부모 가상화폐 손실...경찰, 사망원인 규명 집중

입출금 반복하며 여러 종목 투자  
블랙박스 토대 객관적 입증 주력  
어머니 이씨 불면·공황장애 진료  
부검 후 일가족 화장...임시 안치

가족 차량 블랙박스 SD카드와 휴대전화 2대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디지털 포렌식센터에 분석 의뢰했다.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 2주 가량 소요될 예정이다며, 훼손된 정도에 따라 시기는 변동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일가족의 생존 직전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차량 블랙박스과 휴대전화 2대를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혀낼 실마리로 보고 있다.

특히 유나양 아버지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익사 교통', '수면제', '가상화폐', '방파제 추락 충격', '완도 물때' 등을 검색했다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수면제의 실제 구매 여부도 규명할 예정이다.

다만 SD카드가 한 달간 바닷물에 잠겨 복원 여부가 불투명하고, 차량 내부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2대의 실소유주가 밝혀지지 않아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인양 직후 차량 변속기가 주차 모드(P)에 놓여 있던 점, 운전석 문만 잠겨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 차량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해 고장·단순 교통사고 여부 등도 들여다본다.

여러 정황으로 불매 극단적 선택에 힘이 실리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보고 객관적 사실 입증에 힘쓰겠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일가족이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것에 대해서도 극단적 선택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중이다.

유나양 아버지 조모씨(36)는 지난해 3월부터 6월 사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1억 3,000만원을 투자했다. 이 가운데 2,000만원의 손실이 났고, 나머지 1억1,000만원은 인출해 회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나양 가족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투자

한 것은 사실이나 사망하기 전까지 수차례 포털 사이트에 검색했던 '루나 코인'에는 투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유나양 어머니 이모씨(35)가 지난 4월, 5월 각 1차례씩 광주 한 의료기관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은 내역을 확보했다.

이씨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불면증과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치료를 받았고, 수면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씨가 처방받은 수면제를 아버지 조씨와 유나양이 복용한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카드사에 요청한 의료·카드결제 내역 자료를 토대로 일가족이 수면제를 추가로 처방받았거나 수면유도제를 구매했는지 여부도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풀리지 않은 의혹들을 밝혀내

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조 양 가족의 시신은 곧바로 광주 모 장례식장에 안치됐지만, 빈소는 차려지지 않았다. 조 양 부부가 복잡한 가정사로 친인척과 왕래를 하지 않은데다 시신을 인계하기로 한 유가족은 좋지 않은 일로 세간의 관심을 받는 것을 꺼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유가족은 전날까지 부검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지 장례식 없이 곧바로 화장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화장된 조 양 가족의 유골은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화장장에 임시 안치됐다.

임시 안치된 장지가 결정될 때까지 최대 30일간 유골을 화장장에서 보관해주는 것으로 기간이 지나면 유해는 인근 동산에 뿌려지게 된다. 유가족은 조만간 유골함을 찾아가겠다는 의사를 화장장 측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임재민 기자



거리예술축제 '프린지페스티벌' 2일 오후 광주 첨단지구 쌍암공원에서 열린 '광주프린지페스티벌'에서 줄넘기협회 청소년 시범단이 음악 줄넘기 시범을 보이고 있다. /김태규 기자

## 광주 6월 숙취운전 57건...“특별단속 연장”

광주경찰이 지난 6월 한 달간 숙취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총 57건을 적발했다.

3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음주 교통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6월 한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숙취운전 단속)을 실시했다.

이 기간 음주 단속건수는 43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53건) 대비 21.8%(77건) 증가했다. 일평균 단속 건수도 11.8건에서 14.3건으로 2.5건 늘었다.

음주 교통사고는 38건이 발생해 이중 1명이 숨지고, 64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출근길(오전 6시30분~8시30분) 숙취 단속에서 57건(면허 취소 20건·정지 37건)이

적발돼 일 평균 7.1건을 기록했다.

경찰은 7월부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판단, 특별단속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신고 및 사고 다발지역 등을 중심으로 주·야간, 심야시간대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면서 매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교통량을 감안해 주요도로 등에서 출근길 숙취 운전 단속도 강도 높게 전개할 방침이다. /최환준 기자

## 검찰, 현산 전 경영진 등 추가 기소

총 17명·법인 4곳 재판에 넘겨

검찰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 현대산업개발 전 경영진 등을 추가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형사3부는 지난 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현산 하원기 전 건설본부장 겸 대표이사(현 상임자문)와 권순호 전 대표이사(현 상임고문), 현장 관계자 3명, 하청업체 관계자 1명, 법인 1곳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현산 현장소장 등 11명(6명 구속·5명 불구속)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시공사인 현산, 하청업체인 가현건설산업, 감리인 건축사사무소 광장 등 법인 3곳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시공사 관계자 등 총 17

명, 법인 4곳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현장 안전 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하부층 동바리(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게 지시하거나 방치해 붕괴 사고를 유발, 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대표이사들은 현장에 품질관리자를 법정 인원보다 적게 배치하거나 다른 업무를 겸직시킴으로써 콘크리트 품질 시험 등 공전 전반의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고, 안전관리조직도 구성하지 않아 붕괴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검찰은 이번 사고가 기본을 지키지 않은 원형·하청·감리의 총체적인 과실이 결합한 인재로, 현장뿐 아니라 시공사 본사에서 명백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최환준 기자

## 화정아이파크 공사점검

비밀누설 공무원 '무혐의'

광주 화정아이파크 공사현장에서 지도·감독 기관의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는 공무원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3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청 반부패경계

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 점검 일정 등을 건설사 관계자에게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입건된 서구청 공무원 A씨에 대해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불송치를 결정했다.

A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A씨가 건설사 관계자에게 비밀을 누설했다고 불만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환준 기자

###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뢰받는 기업

**현대로오텍(주)**

**현대이엔티(주)**

생산 및 품질인증시스템의 구축은 물론 **고품질, 고효율, 유지보수**에 편리한 제품 생산을 위해 임직원 모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 완벽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가치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b>생산품</b> <small>수배전반(고압반, 저압반, 전동기제어반, 분전반 등)</small>	<b>태양광EPC</b> <small>태양광시공 및 분양, ESS, 전기공사, 유지보수</small>
<b>현대일렉트릭 특약점</b> <small>비상발전기, 변압기, 모터, 차단기, 태양광PCS</small>	<b>변전소네티킹공사</b> <small>154/345kV S/S 공급 시공, 시스템설계, PM</small>

■ 154kV 해남변전소

■ 태양광발전소-PV+ESS

■ 건물 지붕 태양광

■ 몰드변압기

■ 배전반

■ 주변전선 배전반

**대표이사 노정규**

**C.P** 010-3573-1323  
**Homepage** <http://rotech.kr>  
**E-mail** [rotech@rotech.kr](mailto:rotech@rotech.kr)

광주본사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 연신로 340 (연제동) 현대로오텍(주)  
 TEL : (062) 972-4491 FAX : (062) 972-8863  
 목포공장 :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삼불3길 14 (난전리) 현대이엔티(주)